

| 광주경중, 서주환 한국녹색플랜연구원장 금요조찬포럼 |

# “경제·문화 융복합으로 지역 발전 도모해야”



지난 28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금요조찬포럼에서 서주환 (사) 한국녹색플랜연구원장은 ‘새로운 광주를 위한 혁신적 변용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브랜딩 등 강조…기업, ‘지역 가치 창출자’ 변화 조건 금남로·전남도청 활용…‘세계 속 광주’ 이미지 구축

“미래사회는 쉬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 학문, 문화 등이 융복합된 길로 나가야 합니다.”

지난 28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05회 금요조찬포럼에서 서주환 (사) 한국녹색플랜연구원장은 ‘새로운 광주를 위한 혁신적 변용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주환 원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지역 정체성’을 언급했다.

그는 “역사, 문화, 공간, 정신이 곧 지역 정체성이다”며 “빛고을인 광주는 ‘민주와 정의의 도시’, ‘예향 광주’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앞으로 향후 50~100년을 내다봤을 때 지역 발전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와 호남이 인공지능(AI) 산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나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은 1950년 6·25전쟁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전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적으로만 여겼던 북한을 용서하고 화해를 시도한 결과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한반도는 대전환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새롭게 변화의 출발점은 지역 정체성의 재해석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광주는 인공지능, 문화콘텐츠, 산업단지, 예술공간 등을 비롯해 경제, 문화, 복지가 함께 존재한다”며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문화와

기술이 융복합된 산업도시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광주형 녹색성장 산업군 재편과 관련해서는 “AI, 에너지 신산업, 그린테크, 문화콘텐츠를 활용해야 한다”며 “기업은 단순한 경제 주체를 넘어 ‘지역 가치 창출자’로 변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천적 전략에 대해서는 “지역 문화와 산업의 융합, 공간 재해석과 브랜딩, 지속 가능한 정원 도시 조성이 핵심”이라며 “기업은 지역 문화 자산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시민은 지역 자부심을 가지며 소비에 적극 나서면 지역경제가 선순환된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지역 브랜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혁신과 새로운 지역 브랜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의지에서 시작된다”며 “전통 계승도 중요하지만, 이를 자원화해 경제와 연관한 ‘혁신의 도시’, ‘세계 속 광주’라는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순천만정원, 전주한옥마을처럼 굴목 없는 산업이 떠오르고 있다”며 “무등산, 영산강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야 한다”고 당부했다.

5·18민주화운동 유적지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제안했다.

서 원장은 “미국 뉴욕 맨해튼 911 메모리얼 파크, 일본 고베항 지진피해 메모리얼 파크는 관광객에게 과거와 아픔, 회복, 미래를 보여준다”며 “미국과 일본은 꺼내기 싫은 아픈 기억과 상처를 경제와 접목해 지역 관광 활성화로 연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광주도 이들 사례처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굴목 없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금남로, 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 등 역사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광주경영자총협회 금요조찬포럼 다음 강의는 오는 5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 겸 치료장이 ‘나의 가족 나의 한센인’이라는 주제로 열린 예정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문화신협은 최근 창립 32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지역사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신협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 “지역사회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신협으로 도약”

### 광주문화신협, 창립 32주년 기념식…풀뿌리 금융 다짐

광주문화신협은 최근 창립 32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지역사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신협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광주문화신협은 1993년 순수 민간 금융 협동조합으로 출범한 뒤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상생을 운영의 중심에 두고 사업을 이어왔다.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 아래 지역민과의 접점을 넓히며 풀뿌리 금융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

지난 2013년에는 전국 신협 가운데 최

초로 조합 이용 실적을 반영하는 ‘이용고배당제도’를 도입했다. 단순 출자금 중심의 배당에서 벗어나 조합과의 거래 전반을 평가에 포함시킨 것으로, 조합원 만족도를 높인 제도로 꼽힌다.

광주문화신협은 이 같은 제도 운영과 인적적인 성장 흐름에 힘입어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 4만명, 거래 고객 9만명을 기록했다.

출범 초기 663명에 불과했던 조합원 수는 6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자산 규모는

연평균 24%가량 성장해 1조6000억원대로 늘었다. 이는 전국 870개 신협 가운데 자산 기준 3위에 해당한다.

현재 본점을 포함해 9개 영업점을 운영하며 지역민의 금융 상담과 민원 해소에도 주력하고 있다. 창립 이후 단 한 차례의 적자도 없는 흑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점도 내부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고영철 이사장은 “지난 32년 동안 조합원 중심의 투병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 자리하기 위해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오비맥주, 골목상권 자영업자 응원 성과 인정

### 산업통상부 장관상 수상…조직문화PR 우수상도

오비맥주가 전국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응원하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비맥주의 ‘우리동네 히어로’ 캠페인이 최근 ‘2025 CSR 필름페스티벌 어워드’에서 ‘따뜻한 사회 부문’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8개 정부부처가 공식 후원한 CSR필름페스티벌 어워드는 기업과 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을 영상으로 공모해 평가하는 행사로, 2012년 시작해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심사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을 바탕으로 기획의 창의성, 사회문제 중대성, 사회문제 해결, 작품성(전달력)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는 63개 기업·단체에서 94개 작품을 출품했다.

오비맥주 ‘우리동네 히어로’ 캠페인은 자영업 폐업 100만시대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골목 상권을 지키는 자영업자들을 우리 사회의 ‘숨은 히어로’로 조명한 프로젝트다. 이번에 수상한 캠페인 영상은 전국 영업사원이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의 실제 사연을 모아 현실적인 골목 상권의 이야기를 담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8월 전국 오비맥주 영업사원은 ‘응원하고 싶은 골목 상권 사장님’을 주제로

330여건의 사연을 제출했고, 이 중 100여개 사업장의 사장을 ‘우리동네 히어로’ 1기로 선정했다. 9월에는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부사장과 김병훈 영업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전국의 ‘히어로’ 업장을 직접 방문해 트로피와 감사 선물을 전했다.

오비맥주는 캠페인 영상을 공식 SNS와 사내 레터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공유하며 상생 가치 확산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1일 한국PR협회가 주관한 제33회 한국PR대상에서 사내커뮤니케이션(조직문화 PR)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부사장은 “이번 수상은 골목상권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오비맥주의 진정성을 인정 받은 결과다”며 “앞으로도 전국 상권과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광주은행, 전 영업점 ‘한겨울 쉼터’ 운영

### 휴식 공간·무료 핫팩 제공

광주은행은 올겨울 한파 대비를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광주·전남·수도권 전 영업점에서 ‘한겨울 쉼터’를 운영한다 고 30일 밝혔다.

기습 한파와 대설 등 변덕스러운 겨울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광주은행은 영업점을 찾는 지역민들이 잠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방문 고객에게 무료 핫팩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2018년 은행권 최초로 광주·전남·수도권 영업점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선보인 이후 계절별 특화 서비스로 ‘한겨울 쉼터’까지 확대 운영하며 매년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객뿐 아니라 지역민 누구에게나 개방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박성숙 광주은행 영업기획부장은 “광주은행의 한겨울 쉼터는 영업점 운영 시간 동안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www.hdhtec.co.kr

## HYUNDAI HI-TEC Industry

### 신뢰와 기술을 토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는 Global Top Mobility Body Maker 현대하이텍

1991년에 설립된 현대하이텍은 Mobility Body Maker로 인화되전, 근면성실, 주인 의식이라는 사훈과 품질향상, 기술혁신, 신용확대 라는 경영방침 아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현대하이텍은 Global Top Mobility Body Maker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동안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가 되기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며, 임직원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경영을 추구하여 보다 비전있고 가치있는 회사가 되도록 전진하겠습니다.

(주)현대하이텍 · (주)넥스오트 회장 김용구

#### 고객과의 신뢰 강화와 ESG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현대하이텍 본사

현대하이텍 제2공장 기립부설연구소

제일사, 주식회사 넥스오트

### (주)현대하이텍

HYUNDAI HI-TEC Industry Co., Ltd.

· 본사/제1공장/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47 (오신동) · 제2공장/부연구소: 광주광역시 평동산단5번지 81  
· TEL: 062-953-2240 · FAX: 062-952-2186 · e-mail: kg24@daum.net · Homepage: www.hdhtec.co.kr